

미 증시, 만기일 앞두고 경기 침체 이슈 빌미로 큰 폭 하락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연준을 비롯해 글로벌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특히 미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한 결과를 발표하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점도 영향. 한편, 애틀란타 연은은 GDPNow를 통해 2분기 GDP 성장률을 0% 성장 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 높임. 이 결과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필수 소비재 업종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의 화두가 ‘경기 침체’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 진행된 가운데 만기일 앞두고 큰 폭 하락(다우 -2.42%, 나스닥 -4.08%, S&P500 -3.25%, 러셀2000 -4.70%)

특이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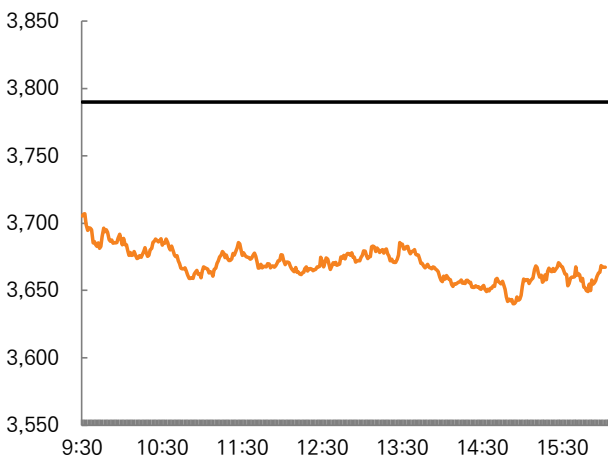
• 테슬라(-8.54%)는 판매 가격 인상 불구하고 경기침체 시기 판매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더불어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코인베이스(-7.20%), 페이팔(-6.07%), 엔비디아(-5.60%)도 하락. 마이크론(-6.95%), 등 반도체 업종도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24% 하락. 메타 플랫폼(-5.01%), 알파벳(-3.40%)은 경기 침체 시기 광고 수익 감소 우려로 아마존(-3.72%), 애플(-3.97%)은 공급망 문제, 물류 비용 상승,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2.89%, MSCI 신흥 지수 ETF는 3.0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87.18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99% 하락. KOSPI는 1% 내외 하락 출발 예상

• 미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각국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는 부담. 전일 미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파월 연준의장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 시장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점 또한 부담. 파월은 당시 경제 지표에서는 침체의 징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소매판매 감소에 이어 이날 발표된 위축된 주택 지표 등을 감안 현장의 데이터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 그렇지만, 발표된 경제지표의 세부 항목을 보면 날씨 등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지속적으로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1% 내외 하락 출발 후 외국인의 매매 동행에 의해 방향성이 결정 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명	Close	D-1(%)	지수명	Close	D-1(%)
KOSPI	2,451.41	+0.16	상해종합	3,285.39	-0.61
KOSDAQ	802.15	+0.34	홍콩항셍	20,845.43	-2.17
DOW	29,927.07	-2.42	베트남	1,236.63	+1.87
NASDAQ	10,646.10	-4.08	유로스톡스 50	3,427.91	-2.96
S&P 500	3,666.77	-3.25	영국	7,044.98	-3.14
캐나다	19,004.06	-3.10	독일	13,038.49	-3.31
일본	26,431.20	+0.40	프랑스	5,886.24	-2.3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경기 침체 우려

연준이 FOMC를 통해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올해 말 정책 금리 목표를 3.4%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을 시사하자 시장 심리가 소비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에 주목하며 주식시장 하락이 확대.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했던 연준은 공급측 변화를 조정할 수 없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수요 감소 조치밖에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 둔화 우려가 더욱 높아짐. 관련 우려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갑작스럽게 기준금리를 50bp나 인상하자 본격적으로 확대

전일 발표된 미국의 소매판매가 가솔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0.3% 감소한 데 이어 연준의 적극적인 조치로 연속적인 소매판매 둔화 우려가 높아진 점이 결국 주식시장의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추정. 지난 4월에 이어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최근 다시 역전되고 소비심리지수가 크게 위축되는 등 증시 주변에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신호가 유입된 점이 경기 침체 이슈를 더욱 자극

한편, 애틀란타 연은이 GDPNow를 통해 2분기 GDP 성장률이 0%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1.5% 감소한 데 이어 2분기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한 것으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즉 ‘기술적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부각돼 투자 심리 위축

그렇지만,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역대 최대 무역적자, 코로나 부양책 감소에 따른 정부 지출 감소, 재고 판매 감소, 인플레이션 등 기술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과도한 우려는 향후 제한될 것으로 전망. 특히 2분기 무역적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은 제한적

물론, GDP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개인 소비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위축될 수 있어 경기 둔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역사적으로 금리의 급격한 상승 시기에 경기 침체를 방지한 경우는 1994년 단 한번 밖에 없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듯. 그렇지만, 정부 지출이 최근 증가세로 전환 했고, 무역 적자가 크게 감소한 점 등을 감안 관련 우려가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 오히려 미국 재무부의 유동성 공급, 대 중국 관세 인하, 러시아산 원유 구매 허용을 통한 국제유가 하락 유도 등 많은 정책적 조치가 좀더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흐름에 주목해야 할 것

*애틀란타 연은의 GDPNow

<https://www.atlantafed.org/cqer/research/gdpnow.aspx?panel=1>

한편, 장 후반 낙폭을 확대했던 요인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시리아에 있는 이란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비밀리에 협조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는 미국과 이란의 마찰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자극했기 때문. 최근 이스라엘이 시리아 공항을 폭격 했을 당시 러시아가 강한 비판을 했으며, 이후 러시아와 이란의 협력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 바 있음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기술주 하락 Vs. 필수 소비재 견고

테슬라(-8.54%)는 자동차 판매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시기 판매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더불어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코인베이스(-7.20%), 마이크로스트래티지(-5.84%), 블록(-8.58%), 페이팔(-6.07%), 엔비디아(-5.60%) 등도 암호화폐 시장의 부진으로 하락. 마이크론(-6.95%), 퀄컴(-7.79%) 등 반도체 업종도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24% 하락. 메타 플랫폼(-5.01%), 알파벳(-3.40%)은 경기 침체 시기 광고 수익 감소 우려로 아마존(-3.72%), 애플(-3.97%)은 공급망 문제, 물류 비용 상승,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 특히 애플은 노조 설립 투표 소식도 하락 요인

부킹닷컴(-6.44%) 등 여행주, 카니발(-11.08%) 등 크루즈 업종, 라스베가스 샌즈(-5.42%) 등 리조트, 델타 항공(-7.45%) 등 항공주 등도 경기 침체로 인한 여행 취소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엑슨모빌(-3.69%), 셰브론(-5.35%) 등 에너지 업종은 보복 세금,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 둔화 이슈가 부각되자 하락. 캐터필러(-5.44%), 3M(-2.52%) 등 기계 및 산업재 업종도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 반면, 월마트(+1.04%), P&G(+0.61%)는 물론 제너럴 밀스(+0.62%) 등 필수 소비재 업종은 경기 침체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며 상승. 금광 업체 뉴몬트마이닝(+3.24%)은 금 가격 상승에 힘입어 강세. 어도비(-3.14%)는 장 마감 후 견고한 실적 발표 불구 가이던스 하향 조정으로 4% 하락 중.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6.35	대형 가치주 ETF (IVE)	-2.74
에너지섹터 ETF (OIH)	-5.50	중형 가치주 ETF (IWS)	-4.07
소매업체 ETF (XLY)	-4.90	소형 가치주 ETF (IWN)	-4.50
온라인소매 ETF (EBIZ)	-6.01	대형 성장주 ETF (VUG)	-3.97
금융섹터 ETF (XLF)	-2.53	중형 성장주 ETF (IWP)	-4.62
기술섹터 ETF (XLK)	-4.07	소형 성장주 ETF (IWO)	-4.93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5.15	배당주 ETF (DVY)	-2.96
클라우드 ETF (CLOU)	-4.93	신흥국 고배당 ETF (DEM)	-2.84
미국 리츠 ETF (VNQ)	-2.63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1.66
주택건설업체 ETF (XHB)	-6.61	미국 국채 ETF (IEF)	+0.65
바이오섹터 ETF (IBB)	-2.61	하이일드 ETF (JNK)	-1.66
헬스케어 ETF (XLV)	-1.47	물가연동채 ETF (TIP)	-0.30
곡물 ETF (DBA)	+1.01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11
반도체 ETF (SMH)	-5.93	모멘텀 ETF (MTUM)	-2.56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필수소비재	714.75	-0.66	-4.36	-11.28
헬스케어	1,392.94	-1.52	-6.09	-7.61
유틸리티	330.30	-1.97	-9.01	-8.93
부동산	241.66	-2.55	-8.26	-9.62
금융	510.78	-2.57	-8.64	-7.46
산업재	722.66	-3.38	-8.39	-7.93
통신	180.99	-3.45	-8.50	-8.88
소재	469.30	-3.65	-10.98	-9.20
IT	2,153.20	-4.11	-9.49	-8.52
경기소비재	1,052.38	-4.76	-10.57	-9.45
에너지	588.41	-5.58	-13.77	-6.3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2.89%, MSCI 신흥 지수 ETF는 3.0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87.18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99% 하락. KOSPI는 1%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연준이 FOMC를 통해 정책 금리를 75bp 인상하고 올해 금리 전망을 3.4%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시사했으나, 파월 연준 의장의 덜 매파적인 발언에 힘입어 한 때 2% 넘게 상승. 그렇지만, 중국이 상하이 지역 코로나 검사를 매주 주말 단행한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 국무원이 과도한 경기 부양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폭이 축소. 더불어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점도 상승 축소 요인. 이 결과 KOSPI는 0.16%, KOSDAQ은 0.34% 소폭 상승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각국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는 부담. 달러화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음에도 NDF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는 등 경기 침체 시기 피해 국가들의 외환시장이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점도 부담. 물론, 글로벌 각국이 당장 경기 침체로 전환될 가능성은 제한되나,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에 따른 수요 둔화가 결국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인 것은 사실

특히 전일 미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파월 연준의장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 시장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점 또한 부담. 파월은 당시 경제 지표에서는 침체의 징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소매판매 감소에 이어 이날 발표된 위축된 주택 지표 등을 감안 현장의 데이터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 그렇지만, 발표된 경제지표의 세부 항목을 보면 날씨 등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지속적으로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1% 내외 하락 출발 후 외국인의 매매 동행에 의해 방향성이 결정 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급격하게 위축된 주택 지표 Vs. 견고한 고용시장

미국 5월 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달 발표(181만 건)나 예상(169.5만 건)을 크게 하회한 154.9만 건을 기록해 전월 대비 14.4%, 전년 대비 3.5% 감소. 지역별로 차별화 되었는데 남부 지역이 전월 대비 20.7%, 서부지역이 17.8% 감소했으나, 북동부가 14.6%, 중서부가 1.9% 증가. 착공 허가 건수도 지난달 발표(182.3만 건)나 예상(178만 건)을 하회한 169.5만 건을 기록

6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는 지난달 발표(2.6)와 예상(5.5)과 달리 -3.3을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하락.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주문이 22.1에서 -12.4로 급격하게 위축되었으나 고용지수가 25.5에서 28.1로 개선되었으며 가격 지불지수는 78.9에서 64.5로 완화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 발표(23.2만 건) 보다 감소한 22.9만 건을 기록했으나 예상(22만 건)을 상회. 4주 평균은 21만 5,750건에서 21만 8,500건으로 증가했으나 견고함을 보임. 특히 연속 신청 건수가 1986년 이후 가장 낮은 128만 2천 건을 기록



국채 금리, 경기 침체 우려로 큰 폭 하락 지속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로 크게 하락하기도 했으며 남아공이 유가 급등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하락 요인. 그렇지만 여전히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자 상승 전환에 성공. 특히 EU가 며칠 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합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상승 요인

달러화는 경기 침체 이슈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강제 등의 영향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유로화는 라가르드 ECB 총재가 유로존 채권 스프레드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달러 대비 강세. 파운드화는 영국이 25bp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나, 9명의 위원중 3명이 50bp 인상을 주장했다는 소식에 달러 대비 강세. 스위스 프랑은 갑작스러운 50bp 금리인상 소식에 달러 대비 3% 대 강세.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약세 불구 경기 침체 이슈에 반응을 보이며 달러 대비 약세. 멕시코 페소 등 여타 신흥국 환율도 달러 대비 약세

국채금리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자 하락. 더 불어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점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특히 스위스 중앙은행이 15년만에 정책 금리를 50bp 인상을 단행하자 장 초반 상승하기도 했으나 경기 침체 이슈가 본격화 되자 하락 전환 후 낙폭이 확대

금은 달러 약세 및 안전자산 선호심리 유입으로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불구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수요 둔화 이슈로 하락. 곡물은 밀이 날씨로 인해 겨울밀 수확이 감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옥수수과 대두도 수확량 감소 우려가 부각되자 상승.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3.67%, 철근은 2.79%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17.59	+1.40	-3.77	Dollar Index	103.813	-1.28	+0.57
브렌트유	119.81	+0.56	-3.17	EUR/USD	1.0547	+0.99	-0.66
천연가스	7.46	+0.82	-16.53	USD/JPY	132.15	-1.26	-1.64
금	1,849.90	+2.07	+0.24	GBP/USD	1.2349	+1.39	-1.15
은	21.98	+2.48	+0.57	USD/CHF	0.9663	-2.81	-1.42
알루미늄	2,504.50	-3.39	-9.29	AUD/USD	0.7046	+0.61	-0.73
전기동	9,074.50	-1.68	-5.62	USD/CAD	1.2947	+0.43	+1.95
아연	3,577.50	-1.80	-4.90	USD/RUB	57.3607	+2.70	-0.14
옥수수	735.00	+2.01	+2.62	USD/CNH	6.6871	+0.28	-0.21
밀	1,090.50	+2.66	+0.65	USD/KRW	1,285.60	-0.38	+2.28
대두	1,543.25	+1.43	-2.34	USD/KRW NDF1M	1,287.17	+0.66	+1.82
커피	231.80	+1.44	-1.2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WTI	117.59	+1.40	-3.77	Dollar Index	103.813	-1.28	+0.57
브렌트유	119.81	+0.56	-3.17	EUR/USD	1.0547	+0.99	-0.66
천연가스	7.46	+0.82	-16.53	USD/JPY	132.15	-1.26	-1.64
금	1,849.90	+2.07	+0.24	GBP/USD	1.2349	+1.39	-1.1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